한국당, 무소속까지 영입해도 1석차…제1당 바뀔 가능성 희박

지방선거 '기호1번' 누가 달까

민주, 민병두 사퇴·현역출마 3명
서울·경기 현역 후보될 확률 낮아
경선 결과 따라 무소속 접촉할 수도

"일 좀 합시다"…민주당 국회정상화 촉구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현역 의원 출마가 점차 늘면서 원내 제 1당의 지위가 바뀔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이 3명이나 출마하게 되면서 원내 1당 지위를 뺏길까 부심하고 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나가고 지방선거에서 기호 1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내 1당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대응했으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의석 차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현재까지 광역단체장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민주당 현역 의원은 양승조(충남), 박남춘(인천), 김경수(경남) 의원 등 3명이다. 여기에다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서울 및 경기 광역단체장 후보경선에도 현역 의원들이 후보로 뛰고 있어 추가로 출마자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만약 2곳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 민주당 의석수는 현재 121석에서 116석까지 줄게 된다.

더욱이 민주당 지도부는 끝까지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민병두 의원의 경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 보도가 나오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해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하지만, 제 1당이 바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서울과 경기에서 현역 의원 출마자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관측이 많다.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의 결집이 이뤄진다 해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선두 후보의 과반 득표로 결선투표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민병두 의원의 경우 본회의가 열려야 사퇴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한국당 측에서도 염동열·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계류 중이어서 본회의를 열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한국당에도 현역 출마 의원이 있다. 경북지사 후보가 된 이철우 의원이다.

따라서 민주당 측의 후보 확정자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이 의원이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 민주당과 한국당 의석수 차이는 3석이 된다. 여기에다 한국당 출신인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 2명이 혹시라도 움직이게 될 경우에도 민주당이 1석을 더 갖고 있는 상황이 된다.

또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호남이 지역구인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이 있다. 이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영입 노력을 하면 입당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관측이다. 물론 두 무소속 의원이 과거 민주당과 호남에서 경쟁했던 국민의당 출신으로 현재의 민주당과 정치적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당장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많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당 차원에서 무소속 의원을 접촉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경선 결과 등을 차분하게 지켜본다는 게 당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선거의 정당 기호는 5월25일,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기준 시점은 5월29일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차서 끝낸다" vs "결선까지 간다"

민주 서울시장·경기지사 후보 경선 돌입…내일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 함께 서울시장·경기지사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도 시작했다.

서울시장 후보직을 두고는 박원순 현 시장,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이 그리고 경기도지사 후보직을 두고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전해철 의원,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각각 도전장을 냈다.

경선은 이날부터 사흘간 이뤄지며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20일 결과를 발표한다.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때는 23~24일 상위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한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의 경우 선두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시장 측에서는 1차 경선에서 50% 이상을 득표해 본선행을 확정 짓겠다는 구상이지만, 추격 중인 박영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은 박 시장의 과반 득표를 막고 승부를 결선투표로 끌고 가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이날 앞다퉈 자신이 차기 서울시장에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이들은 '당심'이 반영되는 권리당원 투표를 의식한 듯 앞다퉈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도 이 전 시장, 전 의원, 양 전 시장은 저마다 적임자론을 내세우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평가받는 이 전 시장 측과 전 의원 측이 민주당의 제 1당 위기설을 놓고 공방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 전 시장 측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 "지방선거에 나설 국회의원 후보가 속속 확정되며 국회의원의 이탈이 늘고 있어 더 의석수를 잃으면 민주당은 1당을 놓칠 수 있다"고 전 의원 측을 공략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 캠프도 대변인 성명을 발표, "국회 원내 1당을 유지하기에는 아직 2석의 여유가 있다"며 "이 전 시장 측이 '원내 1당 유지'라는 교묘한 논리로 당원과 도민을 상대로 교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휴전선 철조망 훌쩍 뛰어넘을 그날 '성큼'

김은영의 '그림 생각'

(221) '봄이 온다'

임옥상 작 '하나 됨을 위하여'

2018남북평화협력기원 평양 공연 '봄이 온다'가 화제다. 그 녹화 방송을 시청하면서 최근 달라진 남북의 기류를 상징적으로 느꼈던 대목은 가수 백지영이 열창했던 '총 맞은 것처럼' 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호응이었다. 그토록 애절한 노래가 북한 대학생 애창곡 1위라고 하니 실연의 쓰라림을 느끼는 남과 북의 정서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서라도 '남북은 하나'라는 동질감을 내심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까.

전쟁이 일어날 것 같던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던 때가 언제인가 싶게 금방이라도 한반도에 '봄'이 올 것 같은 기대감이 밀려드는 것은 우리들 마음을 적시는 노래들 덕분인 것 같다. 부디 이 공연이 씨앗 되어 예쁜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

통일을 향한 열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임옥상 작가(1950~)의 '하나 됨을 위하여'(1989년 작)를 꼽고 싶다. 1989년 문익환목사(1918~1994)의 방북사건을 다룬 이 작품은 분단의 장벽을 뛰어넘는 문목사를 종이부조로 표현해 화면의 입체감을 높이면서 통일의 의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남쪽으로부터 달려온 문목사가 휴전선 철조망을 가볍게 넘어 북쪽으로 넘어서는 순간을 우리가 정면으로 볼 수 있도록 화가와 관람자의 시선을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게 했다. 북녘 산하에 피어있는 진달래꽃과 무심한 잡초가 남북의 오랜 단절의 시간을 말해주는 듯하다.

임옥상작가는 "당시 누구도 갈 수 없었던 금단의 북한 땅 평양에 문목사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이 무척 컸다. 민족의 희원이자 통일을 향한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때이기도 해서 한 달 여 작업을 해서 완성했었다"고 들려준다. 지난 정권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전 때 전시되려다가 전격 교체되는 수난을 겪는 등 이 작품과 더불어 가슴앓이를 했던 작가는 "향후 이어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서 이 작품을 편하게 감상하는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고 희망한다.

〈광주비엔날레정책기획실장·미술사 박사〉